시끌벅적 e-스타

동영상 '된장녀 송' 나왔다

한 때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최고 유행어 '된장녀'가 동영상으로 나왔다. 이른바 '된장녀송'.

지난 6일 다음·풀빵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뒤 네티즌들에게 퍼날리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된장녀의 하루'라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온 뒤 불붙기 시작한 '된장녀' 논쟁은 남녀 성대결 논쟁으로 이어지며 인터넷을 점령했고 최고 유행어로 떠올랐을 정도.

'된장녀'동영상은 명품을 찾고 머리가 텅 비었지만 몸매도, 얼굴도 예뻐 꾹 참아온 '된장녀'인 여자 친구에게 오늘은 용기를 내 헤어지자는 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이라는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바꾼 것이 부드럽게 들어맞으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 묘사된 가사는 이렇다. '오늘은 그녀 세번째 수술한 날/몸매도 죽이는 예쁜 그녀이지만 머리는 텅 비었네/…/푸라다 핸드백을 사다줄까/짝퉁인걸 넌 알아볼까/ 머리속에 똥만 찬 된장 그녀는/조금씩 갉아 먹어가 내 월급을/…/이쁘면 다 좋은 나도 참 병신이다/부모님이 나 이런 걸 알까/오늘은 그녀에게 깨자고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동영상을 만든 풀빵닷컴(www.pullbbang.com)의 홍승표(26)씨는 '미티'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인터넷 스타다. 인터넷에 퍼날라지고 있는 '신대방 부르스'시리즈물이 그가 만든 동영상. '된장녀송'도 모두 16편인'신대방부르스'중 하나로 이번 동영상에서 선배·친구와 함께 직접 노래도 부르고 출연에 제작까지 맡았다.

홍씨는 "서울 신대방에서 자취하는 한 인간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만든 동영상이라는 의미로 '신대방부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네티즌들이 재미있어 하니 기분좋은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누가 저 비를 멈출 수 있을지

지난 7월 무더운 날씨에 안개 같은 먼지는 자욱하고 땀도 흐르고 목이 마르는데 "소낙비라도 한번 와 주었으면"하던 때가 있었다. 비는 혹시 자동차의 윈도브러쉬 처럼 저 답답한 먼지들을 말끔히 닦아줄(wipe out) 수 있을 것만 같아서였다. 70년대 초반의 노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비를 본적이 있나요'. C.C.R의 음악이다. 비가 생각나서 듣다 따라 불러 보는 노래, T.V의 리모콘을 마이크처럼 붙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불러 보지만 사실은 슬픈 노래다. 월남전의 뽀얀 먼지 같은 고엽제를 빗대어서 반전의 분위기를 북돋워 주었던 노래였기 때문이다. 고엽제가 비처럼 내렸을 것이다. 노래는 그것의 반영이다.

그리고 이제 8월이다. 기대했던 비가 오는가 싶더니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 치는 소리까지 동반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닐까""죄 지은 것, 잘못 한 것 많은데…" 하는 생각을 농담처럼 하고 있을 때, 지난달에 듣던 C.C.R의 C.D가 또 다시 눈에 걸렸다. 그래서 듣게 된 노래는 Who'll stop the rain, '누가 이 비를 멈추게 할까'였다. 간사하다. 비에 목마르다 할 때는 언제고, 비가 많이 올 것을 걱정할까. 'john fogerty' 목소리는 '존 포거티'였다. 저렇게 거친 목소리가 의외로 사람들에게 편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Long as I remember(내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the rain been coming down(비는 내렸지요). (clouds of mystery)알 수 없는 구름은 pouring confusion on the ground(땅 위에 혼돈을 퍼붓고) goodman through the ages(지난 시대의 좋은 사람들은) trying to find the sun(해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and I wonder still I wonder(나는 궁금해요 여전히 알고 싶어요). Who'll stop the rain(누가 이 비를 멈추게 할까요). I went down Virginia(버지니아로 갔어요). seeking shelter from the storm(폭풍을 피해서) caught up in the fable 옛 이야기 처럼 I watched the tower grow 바벨탑 같은 그들의 성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요 five year plans and(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new deals(뉴딜 정책은) wrapped in golden chains(황금에 눈먼 사슬에 묶여 있어요). and I wonder still I wonder.(아 나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Who'll stop the rain. (누가 저 비를 멈출 수 있을지).

비교적 낙천적인 미국 서남부의 분위기를 갖는 팝송이다. 음악은 손을 내미는 분위기다. 누구든지 내 맘을 안다면, 말 좀 들어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관자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맘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맘에 안 들어요"이기도 한데, 먼 나라의 음악이 지금 우리의 거울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노랫말에서 이르는 것처럼 알고 싶고 궁금하다.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다시 공급한다는 뜻의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퀘퀘묵은 약40년 전의 그룹,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음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할 말을 하고 있는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 먼지가 자욱해도,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목은 마르다. 먼지 속에 그냥 있기도 비를 맞으며 서 있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노래에 나오는 비는 그냥 비가 아닌 것이다.

〈음악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76.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선수가 마침내 미국 야구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8일 미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개인 통산 756호째 홈런포를 쏘아올려 이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였던 행크 아론의 종전 기록을 31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986년 데뷔해 22시즌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배리 본즈 ②이승엽 ③최희섭 ④박찬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9일(음력 6월 27일 乙亥)

子 36년생 다시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48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6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72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84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1, 32

丑 37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49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1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73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85년생 일 겨수 일 투족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8, 35

寅 38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멀지 않다. 50년생 혼자하면 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62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7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1, 41

卯 39년생 처음 가는 길이니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51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75년생 순풍과 역풍이 같이한다. 행운의 숫자 : 20, 38

辰 40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52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마라. 64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6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 12, 30

巳 41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3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5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77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34

午 42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4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66년생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언쟁을 삼가라. 7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02, 31

未 43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결과는 조그맣다. 55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피라. 6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79년생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다 상심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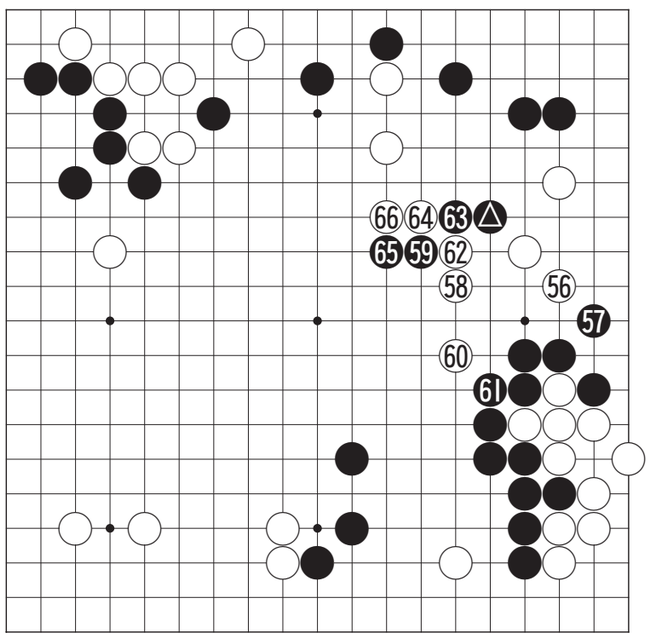
申 44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6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68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8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 28

酉 45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7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69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1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 44

戌 46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8년생 재물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70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82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17

亥 47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71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장을 살펴보라. 83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식솔은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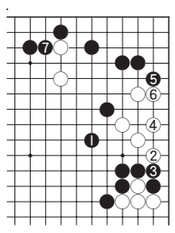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빗나간 연결의 맥점 4보(56~66)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참고도〉

흑 △가 좌우의 백 돌을 호령하는 통렬한 공격으로 김광식 5단이 때를 만난 장면이다. 박정규 5단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싸움이 크게 번지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대마의 사활이 걸려 김광식 5단으로서는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백 56으로 물러선 것은 위험을 감지한 것. 이때가 흑으로서는 기로. 이쪽은 살려주고 위쪽 백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아예 이곳부터 공격하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김광식 5단은 장고끝에 흑 57로 근거를 빼앗고 밖으로 몰아냈는데 이 수가 고난을 자초한 무리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봉쇄하고 6까지 살려준 다음 7로 두어 위쪽을 공격했어야 했다.

백 58로 나간 다음 60이 통렬한 선수가 되어 공격이 어렵게 된데다가 거꾸로 64의 역습을 당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김승준 명인전 5승째

김승준 9단이 지난 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박정상 9단을 235수 만에 흑 불계로 물리치고 두 번째 5승 고지를 밟았다.

초반 별다른 포석없이 좌변싸움으로 시작된 힘겨루기는 중앙과 우변, 하변을 아우르는 대형전투로 이어졌고 실리에서 앞서나간 박정상 9단이 유리한 흐름을 탔다.

그러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김승준 9단은 박정상 9단의 실착을 놓치지 않고 우변에서 큰 수를 내면서 판을 뒤집었다. 이 승리로 김승준 9단은 리그 5승 2패가 되면서 결승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굿모닝 잉글리쉬 <966>

Your passport , please

여권 좀 보여 주십시오

A : Your passport , please.
B : Yes. Here you are.
A :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B : I'm here for sightseeing.
A :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B : I'll be staying here for a month.

A : 여권 좀 보여 주십시오.
B : 네, 여기 있습니다.
A : 여행목적이 무엇입니까?
B : 관광을 하러 왔습니다.
A : 얼마동안 머무르실 것입니까?
B : 한 달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 sightseeing : 관광
* 단체여행을 오셨습니까? = Are you traveling in a group?
* 저는 혼자입니다. = I'm alone.
* 다른 나라도 가실 예정입니까?
  = Are you going to visit any other countrie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66>

ちがう。寝巻(ねま)きじゃないってば。

아니야, 잠옷이 아니라니까

A : ちょっとおしゃれして來(き)ちゃった。待(ま)たせてごめんね。
B : いやいや、ところで, どこへ行(い)こうかな。
そんな寝巻(ねま)き姿(すがた)じゃ, とこにもいけないしね。
A : ちがう。寝巻(ねま)きじゃないってば。
B : そっか。下着(したぎ)だっけ。

A : 멋 좀 부리고 왔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B : 아니, 아니야, 그런데 어디에 갈까?
그런 잠옷 차림으론, 어디에도 갈 수 없고 말이야.
A : 아니야, 잠옷이 아니라니까.
B : 그런가, 속옷이었던가.

下着(したぎ) : 속옷
寝巻(ねま)き : 잠옷=パジャマ(파자마)
おしゃれ : 멋부림, 치장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쫑구워 <156>

这是今天的安排

이것은 오늘의 계획입니다

A: 这是今天的安排，你看看。
Zhè shì jīntiān de ānpái, nǐ kànkan.
[illegible]

B: "上午八点半到十点开会"，我要参加吗？
"Shàngwǔ bādiǎn bàn dào shídiǎn kāihuì" wǒ yào cānjiā ma?
[illegible]

A: 对，你得参加。
Duì, nǐ děi cānjiā.
[illegible]

B: 好，我准时参加。
Hǎo, wǒ zhǔnshí cānjiā.
[illegible]

A: 이것은 오늘의 계획입니다. 보세요.
B: "오전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회의를 시작합니다", 저도 참석해야 되요?
A: 네, 꼭 참석해야 되요.
B: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참석하겠습니다.

安排	[ānpái]	계획
参加	[cān jiā]	참석하다
得	[děi]	… 해야 한다
准时	[zhǔnshí]	정확한 시간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583>

小貪大失(소탐대실)

작을 소, 탐할 탐, 큰 대, 잃을 실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로,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 또는 속담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옛날 촉(蜀, 지금의 四川)나라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강(富强)한 나라이지만, 촉왕은 재물(財物)을 거둬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 이웃나라인 진(秦)나라 혜왕(惠王)은 촉나라의 부유함을 일찍부터 빼앗으려하였으나, 국경(國境)이 험난해서 쉽게 출병(出兵)할 수 없었다.

이에 혜왕은 한 마리의 커다란 대리석 황소를 조각하게 하고, 등에 붉은 주단의 덕석을 덮고 붉은 꽃송이로 장식하여 힘센 장정들을 뽑아 촉나라로 가는 큰 길에 내세워 밀고 가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길가 곳곳에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려 놓고 '황금 똥을 누는 소'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촉나라에 사람을 보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하여 길을 뚫는다면 이 금소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촉왕은 힘센 근위군들을 내 보내어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금소가 지날 수 있는 큰 길을 개통시켰지만, 진나라 군사는 이때를 기다려 새로 뚫은 길을 따라 쉽게 촉나라를 멸망시켜 합병할 수 있었다. 결국은 촉나라는 작은 이익를 꾀하다가 나라까지 잃고 말았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